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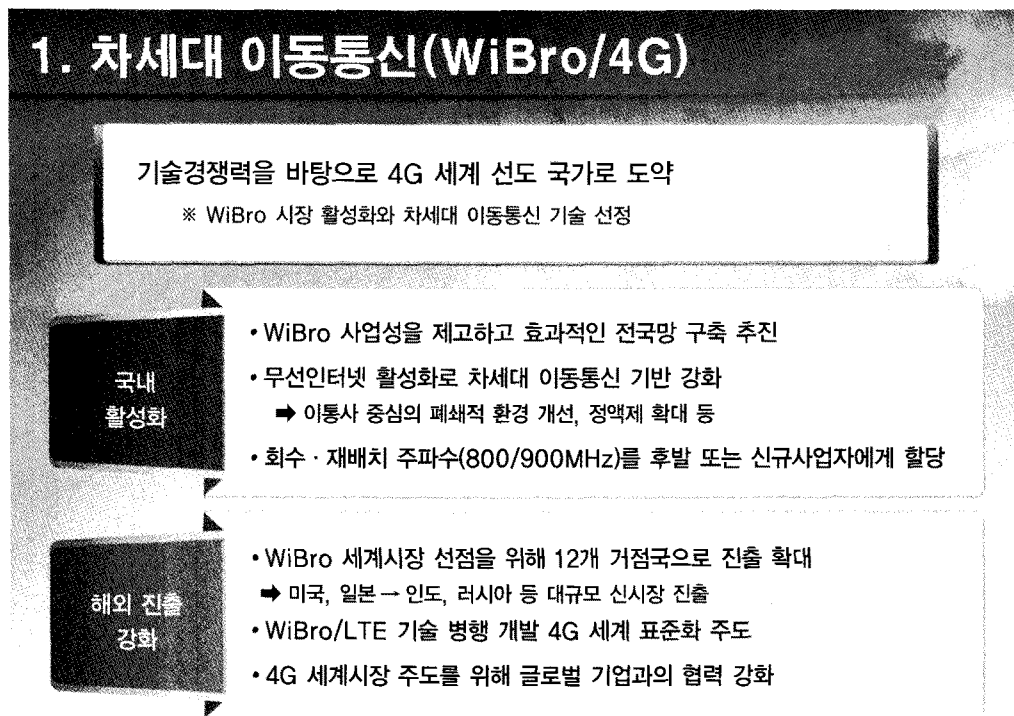
차세대 이동통신전략

이동통신의 미래전략은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4G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와이브로(WiBro)시장의 활성화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한다.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전략에서는 와이브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 위주에서 인도·러시아 등 신흥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12개 거점국으로 진출을 확대해 대규모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와이브

로, LTE의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4G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한다. 4G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이 추진된다.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이란 사업성 제고를 전제로 한 전국 커버리지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며 이번 미래전략의 목표 연도인



2013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을 강화하면서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제를 확대할 것이다. 회수, 재배치 주파수를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통방 융합 서비스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가입자를 현재 73만명 수준에서 2012년 500만명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무선망과 모든 단말에 연결된 생활혁명 주도 서비스로 육성되는 것이다.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모든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한다. 또 민원·교통·지역·관광 등 공공 서비스와 영상회의·원격진료·t커머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개방형 종합정보매체에 있어서는 유선망·방송 서비스 중심의 IPTV를 유무선 종합 정보매체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모바일IPTV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검색, 금융, 상거래, 행정,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생활과 비즈니스에 IP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참여형으로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차세대 방송에 있어서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으로 진화하면서 고품질·양방향·다채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OECD 30개국 중 26개국이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예정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전환을 계기로 차세대 방송인 3D TV 등 차세대 방송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차세대방송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

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3D TV 실험 방송을 실시한다. 3D TV 등 차세대 방송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방송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TV산업을 선도해 나간다. 방송장비 부문 생산을 지난해 6억3,000만달러에서 2015년에는 15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서는 2012년까지 KBS 등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방송설비 고도화로 적극 추진한다. 특정지역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사전 종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송콘텐츠 진흥에서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콘텐츠 산업의 도약 계기를 마련했다. 경쟁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미디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상파와 신규 종편 등 다양한 매체간 경쟁으로 방송 및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영 미디어랩 도입, 간접가상광고 시행 등을 통한 방송광고 시장 규모의 확대로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부여할 것이다.

콘텐츠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사업자와 제작자간 공정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송법을 개정한다. 앱스토어 같은 개방형 모바일 콘텐츠 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이로써 방송통신 융합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게 될 것이다.